2018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모의논술 우수답안

인 문 계 열 문 항

(가)와 (나)는 각각 대나무와 신생아에 대한 양육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가)는 양육자의 손길에 따라 생명이 좌우되는 대상인 대나무의 사례를 보여준다. 대나무는 양육자인 관상국의 손길을 벗어나자 고유한 아름다움을 상실했다. 그런 대나무가 다시 살아난 것은 주체적인 힘이 아닌 (가)의 서술자의 돌봄 때문이다. (가)의 글쓴이의 양육의 손길은 양육의 대상인 대나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대나무가 생명을 회복하게 한다. 따라서 (가)는 대상의 양육은 대상에 긍정적인 것이고 돌봄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나)의 서술자는 양육자의 손길로 오히려 생명이 속박당하는 신생아의 사례를 보여주며 (가)와 달리 양육의 부정적 영향을 주장한다. 신생아는 태어난 뒤 양육의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신생아를 돌보는 것은 신생아의 행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양육자는 신생아를 돌보고 사랑하는 입장에서 양육하는 것이지만 신생아에게 있어서는 양육은 위협이다. 따라서 (나)는 대상의 양육은 대상에게 부정적인 것이고 돌봄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가)와 (나)지문은 양육이 대상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필요성에 따라 입장이 대비된다.

(다)에는 경제를 국가의 통솔로 이끄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나타난다. 이 문제에서 경제를 양육의 대상으로, 국가를 양육자로 볼 수 있다. 미국 임시국가경제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에서의 대기업독점은 국가의 공공정책의 결과이다. 국가라는 양육자가 대상의 경제를 양육하면 대기업의 독점은 강화되고 결국 사회의 경제는 불공평한 구조로 생산하게 된다. (나)의 입장에서 본 (다)의 문제는 양육자의 양육이다. 국가의 양육은 경제를 더 부정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에 빠트린다. 양육이 경제의 자유와 성장을 억압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의 문제에는 양육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그에 따라 양육의 불필요함이 느껴진다. 결론적으로 (다)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자인 국가의 양육이 없어져야 한다. 국가는 경제를 양육해서 독점과 같은 부정적 구조를 만들기보다는 경제가 자율적으로 돌아가도록 자유를 제공해야 한다.